

바지랑대

2019 Vol. 56

발행인 김정우 기획 및 편집 바지랑대 편집위원회



여러분들은 하루 중 음악을 얼마나 들으시나요?



배문주(선임대리 : 음악재활사)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심장 소리, 엄마의 숨소리, 목소리 등을 들으며 많은 소리를 경험하고 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10년 전 호스피스병동에서 음악치료 인턴을 하면서 임종 직전의 환자분들 그리고 그들의 많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20대 부터 80~90대 어르신들을 보며 삶의 마지막 순간,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을 하면 그들 중에는 '찬송가를 부르고 싶다, 내가 젊었을 때 추억이 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 부모님이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 보고 싶다'라며 기타 연주에 맞춰 가족의 손을 꼭 잡고 힘이 없는 매우 작은 목소리로 생애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만큼은 우리가 흔하게 듣는 노래는 그들에게는 간절한 삶의 의지가 담겨 진 노래가 됩니다. 각자의 삶의 경험이 다른 만큼 노래 또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각자에게는 의미 있는 곡들이 됩니다.

다시 공부하게 된 것이 이곳에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진해장애인복지관 음악치료사로서 만난 장애인들과 올해 1월부터 복지관 '파침 합창단'을 담당하면서 소리의 조화를 만들어 내며 합창이라는 장르를 접한 합창단 단원들의 변화를 통해 또 한 번 느끼게 된 것은 음악의 에너지가 분명 존재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사람들하고 노래를 하는 것이 행복해요'

장애인들에게 음악은 누군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 줄 수 있는 유일한 세상과 소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행복일 수 있습니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풀내음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양희은 노래 「참 좋다」

하루 중 우리가 우연히 들었던 음악은 내가 생각 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참 좋다」 노랫말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낀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CONTENTS

- 02
직원글
- 03
목차/시
- 04-05
승민이의 도전 이야기
- 06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평화를 노래하는
파츰합창단 이야기
- 07
장애아동가족의 따뜻함을 담은
동화그리다
- 08
내가 원하는 동네마실
- 09
우리동네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진해반해소
- 10
우리 모두 하나 되는 명절한마당
- 11
공동생활가정 가족여행
- 12
진해이바구
인싸이야기, 함께가게 이야기
- 13
직원동향
- 14-15
사진으로 보는 3분기 이모저모
- 16-17
4분기 안내
- 18
자원봉사자 현황
- 19
후원자 현황

나의 꿈

 $\frac{1}{2}$ 합복순

나의 어린 시절 꿈은 예쁜 발레리나가 되는게 꿈이었다
나는 점점 클수록 꿈들이 바뀌어 갔다
고요태처럼 생긴 가수가 되는게 꿈이기도 했다
어린어린 시절 교육교사 요리사 만화가 꿈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꿈이 많아지
비록 이루어진 꿈은 아니지만 주먹이 새록새록 남는날

꿈꾸는 청년, 승민이의 도전 이야기!

키가 몇cm예요?

키는 300M 인거예요~

승민씨 일 안하고 쉬는 날에는 뭐 할 거예요?

커피는 원두를 내리고 컵을 꺼내선~



도전 하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우수사례 최우수 수상!

편견을 깨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생애 첫 취업면접! 낯선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승민씨는 첫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승민씨는 복지관에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매일 낯선 선생님과 돌만 있는 공간에서 면접을 연습했습니다. 여전히 낯선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은 힘들었지만 질문을 듣고 천천히 생각한 후 대답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면접에서 승민씨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실패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여 취업한 승민씨의 취업 성공 이야기는 지난 2019년 7월 17일 한국 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우수사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도전 둘.

승민이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도전기

"승민이는 다르지 않아요."

"자폐성 장애인은 일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돌발행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자폐성 장애인의 고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승민씨는 취업의 문턱에서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자폐성 장애인의 고용이 어렵다.'고 했던 그 회사에서 미소왕자라 불리며 일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른 삶을 살지 않아요.
나는 당신과 같은 감정을 느껴요
(다만 표현이 조금 서툴 뿐이죠)."

그 마음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자 카카오톡이모티콘으로 제작했습니다. 승민씨가 그린 이모티콘이 카카오톡에서 최종 승인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승민씨는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똑똑똑..
승민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그리고,
끝나지 않은 도전 이야기
승민씨는 오늘도 도전합니다.



승민씨는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언제나 승민씨를
설레이게 합니다. 승민씨의 또 다른 이야기, 기대해주세요~



나는 달팽이처럼 느리지만 꿈을 향해 앞으로 천천히 나아갑니다



7월1일 제9회 창원시민의 날을 맞이해 식전 행사로 1,700여명의 창원시민을 모시고 ‘달팽이’ 합창곡을 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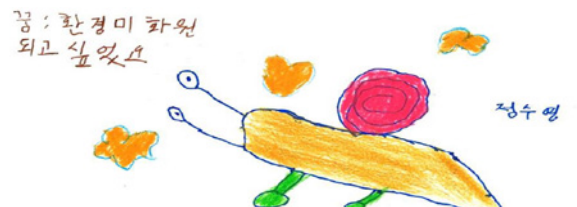
이번 파챌 합창단의 시민의 날 식전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만들어 낸 진정한 시민화합의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번 공연은 파챌 합창단과 함께 진해 농아인 협회, 1080동네방네 시민합창단, 벚소리 합창단원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나는 달팽이처럼 느리지만 꿈을 향해
앞으로 천천히 나아갑니다.

파챌 합창단 단원 정수영



지난 8/15(목) 살며시 찾아온 태풍 크로사를 뒤로 하고 파챌 합창단은 의미 있는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파챌 합창단은 부산 가덕도 산골짜기 외딴 골에 자리 잡고 있는 천사의 집 『소양 무지개 동산』에서 열린 ‘꿈꾸는 산골짜기 작은 음악회’에 초대되어 공연과 야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평소에 시간을 낼 수 없었던 단원과 그들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60여명의 파챌 합창단과 가족들은 레크레이션과 음악공연을 관람을 하였고 넉넉한 마음을 지닌 이웃들에게 깊은 감동의 울림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모든 것

2019 메르세데스 벤츠 올 투게더 지원 사업에 선정 되어, 장애 아동 가족의 따뜻함을 담은 ‘동화그리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형제가 함께 하는 ‘동화그리다’입니다.

8월 5일 오후, 여름방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이 시간을 내었습니다. 장애아동 6명과 비장애 형제 6명이 모였습니다. 첫 모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떠오르는 기억들을 적어보고 그림으로 표현 합니다. 이런 작은 시간들이 모여 12권의 동화책을 완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의 표현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족 여행의 기억, 작은 개미들, 1,2,3, 숫자 그리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동생이 그림을 그리고, 언니가 이야기를 만듭니다. 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장애를 가진 언니가 글을 씁니다.

자매와 형제의 이야기가 녹아 동화가 한결 따뜻해 졌습니다. 10월에는 어머님을 위한 ‘동화그리다’가 이어집니다.



동화책 12권을 소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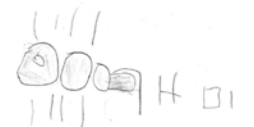
- 아? 여행이요
- 좋아하는 모든 것
- 고양이는
- 민서의 춤
- 엄마, 나도 사랑해요
- 조희의 단어장
- 소나기 오는 날
- 보슬비 온 날
- 계곡에서 생긴 일
- 별의 소년
- 학용품들의 모험
- 주영이의 꽃

좋아하는 모든 것

작가 김민서



물고기는 알록달록 해요



개미는 작아요

동네마실

누군가 나를 야구경기장에 데리고 가 주었으면...

거동이 불편한 허OO씨는 평소 야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야구경기장에 데리고 가 주었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언젠가는 야구장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평소 자택에서 하체 근력 운동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던 어느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허OO씨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리요정’이 별명인 진해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와 이웃이 함께 지난 8월 27일 창원NC파크마산구장으로 생애 첫 야구경기 직관에 동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 받던 문화바우처 카드를 직접 사용해 본적이 없었던 허OO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야구 티켓을 구매하여 NC팀을 응원하러 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야구장에 응원하러 간 그 날, NC는 KT를 상대로 승리하며 기쁨을 선물하였습니다. 허OO씨는 자택에 돌아와서도 즐거움이 가시지 않아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니 다음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어요. 주변에 차량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또 야구장에 갈 거예요.”

이번 야구장 나들이가 허OO씨에게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작은 용기를 가지게 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진해반해소

복지상담 · 의료서비스 지원 · 원예활동 · 차 나눔



10월24일에 진행되는 이동복지관<진해반해소>는 남방약국에서 진행됩니다.

가을 끝자락에 더 따뜻한 모습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유난히 파란 가을하늘 아래, 경화동 행정복지센터 마당은 시끌시끌합니다.

9월 이동복지관<진해반해소>는 가을의 결실처럼 풍성한 이야기로 지역주민을 만났습니다. 무더위와 장마로 한동안 진행되지 못한 탓에 오랜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환절기에 사람들은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습니다. 장애 청년 바리스타가 직접 준비한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며 소소한 일상도 나눕니다.



경화동 주민자치위원회 봉사단과 함께 양종맞은 다육이를 화분에 옮겨 심다보니 마음도 힐링이 되는 듯 합니다. 건강 상황도 점검해보고 서부보건소의 간단한 조치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秋 보름달처럼 풍성한 진해장복의 한가위 한마당

9월 10일 화요일,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는 한가위 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복지관 로비에 모두 함께 모여 전통놀이(단체 윷놀이, 돼지 씨름, 제기차기)를 체험하며 전통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행사에서는 항상 진행하던 팔씨름 대신 돼지씨름을 진행하여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윷이다!”, “말 잡았다!” 모두가 하나 되어 외치며 윷놀이의 즐거움을 더했고, “한 개, 두 개! 더 더!” 제기를 더 차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용자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설 한마당에는 꼭 우승을 하자며 서로를 격려하고 챙기는 모습에 더욱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제로 가재이~~!!!!

설레이는 마음을 하늘이 모르는지, 야속하게도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흐린 날씨에 좌절할 우리가 아니죠! 우산 아래에 손을 잡고 어머니와 딸은 그렇게 여행을 떠납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9월 28일 토요일부터 29일 일요일 까지 1박 2일로 이용자와 어머니가 함께 하는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해저터널, 매미섬, 거제씨월드, 바람의 언덕 등 거제도 일대를 관람했습니다.

특히 이날 여행에는 관장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게임도 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군요.

가을 거제도 여행, 가족과 함께해서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자 소감

우리끼리는 엄두를 내지 못한 가족 여행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음에는 우리 가족끼리 한 번 여행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OO 어머니

1 복지관 인싸(insider) 이야기

보치아 자원봉사자 박혜련

진해이바구



※인싸란 인사이드(insider)의 줄임말로 무리에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복지관과 인연을 맺다.

교직생활을 하던 중 자폐성 장애학생의 상담을 통해 자폐성 장애인도 사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담의 경험을 통해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8년 전 장애인 종목인 '보치아'를 지도해 보라는 권유로 지금까지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 보치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치아의 가장 큰 매력은 자아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보치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컬링'과 비슷한 경기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흰 표적구를 먼저 던진 후 적색공과 청색공을 규칙에 따라 던진 후 흰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숫자가 점수가 되어 승패를 결정하는 경기입니다. 이런 보치아의 가장 큰 매력은 참여자들이 보치아를 통해 자아성취감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공을 마구 던지기만 하던 참여자들이 생각하며 경기하여 이겨보고, 대회에도 참가하여 메달을 따는 등 자신의 성장을 지켜보며 성취감을 느낍니다.

또한 보치아를 통해 규칙과 질서를 배우고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감을 자연스럽게 학습합니다. 이긴 팀을 칭찬하고 진 팀을 격려하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친구가 함께 하는 시간도 가져 모두가 함께 즐기며 우정과 가족애가 돈독한 시간이 됩니다.

저 역시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보치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 가며 봉사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나 또한 배움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누구나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있다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봉사활동은 시간이 있을 때,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보자는 마음을 먹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가게 이야기

2

2019년 상반기 함께가게 현판 전달

지난 8월 12일 월요일에는 2019년 상반기, 복지관의 가족이 된 함께가게 열 한 곳에 현판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역장애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 걸음을 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상반기 신규 함께가게를 소개합니다~

(주)신세화에프앤에스 · 카페모이 · 웅스트릿 · 카페평통 · 천자마루 · 문화에스기업 · 더썬치킨(봉호점) · 통나무가든 · 천안문쌀짜장 · 신기농장 · 고산흑염소

※ 함께가게 가입 문의 : 055-540-0423

직원이야기

입사를 축하합니다



진미난 사회복지사

폴킴을 좋아한다는 사회복지사 진미난 선생님께서 지난 8월 1일자로 우리 복지관에 입사하셨습니다. 진해장애인복지관의 첫 인상이 따뜻해 보여 좋았다는 진미난선생님께서서는 기본에 충실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입사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근무, 진미난선생님의 입사를 환영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김정선

지역권익옹호팀 김정선선생님께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증을 취득 하셨습니다! 이에 지난 9월 4일에는 진해장애인복지관 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실제 상황을 예시로 들며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교육을 잘 진행해주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강의였습니다. 앞으로 멋진 강사로서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박민우 사회복지사

지역권익옹호팀 박민우 선생님께서는 제8회 창원시사회복지사대회에서 창원시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자상한 배려로 지역 장애인에게 '아이돌'로 불리는 박민우 선생님 수상을 축하합니다~!!!



김준혁 선임대리

창원경륜공단 창립 19주년기념식에서 직업지원팀 김준혁 선임대리님께서 감사패를 받으셨습니다. 자전거세차라는 새로운 직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꽃미남 김준혁 선임대리님 수상을 축하합니다~



이경오 작업치료사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작업치료사 이경오 선생님께서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경상남도의장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장애아동을 맞이해주는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의 비타민~! 이경오선생님 수상을 축하합니다.

3분기 이모저모



시간대비 효율 최고!!! 밸런스워킹PT
평생교육 프로그램 첫 개강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 11:00~11:50)



지난 9월 16일 상담문화지원팀에서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동그란 나만의 다육이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직업지원팀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8월 7일).
생활안전지식,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화재안전, 자연재난 안전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교육으로 훈련생들의 안전인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직업적응훈련반 박성호
훈련생의 졸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직접 꾸민 교실에서 관장님의 졸업장
및 격려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졸업생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5일과 6일 샤프론 소속 자원봉사자 6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인권서포터즈가
직접 진행하여 높은 효과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8월 7일은 인권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신규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통합사회적응훈련으로 9월 19일
돌봄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7월 보호자
참여수업으로 진해보건소와 연계하여
함께하는 재활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에서 많은 선물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덕분에 풍성하게 추석 선물을
전달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재활교재대출센터에서는 지난 9월 21일,
28일 양일간 진해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 클로버 부모자녀
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분기 바지랑대 소식지 표지모델은
'진해장애인복지관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근무중인 김효정, 메가박스에서
근무중인 한수지, 현대그린푸드에서 근무중인
이승민, 이마트에서 근무중인 한보란씨가 함께했습니다.
촬영이야기는 QR코드에서 확인하세요~



진해장애인복지관 4분기 안내



4계절김치나누기 가을 무김치

- 일 시 10월 중
- 장 소 진해장애인복지관
- 대 상 지역 내 재가장애인
- 문 의 박민우 055)540-0460



부산장애인 영화제 (barrier free) 관람

- 일 시 2019.10.10.(목) ~10.11일(금)
- 대 상 직업지원팀 훈련생 31명
- 문 의 055)540-0450



장애인 외식지원사업 "나에게로의 초대"

- 일 시 10월~11월
- 장 소 당사자가 원하는 식당
- 대 상 지역 내 재가장애인
- 문 의 박민우 055)540-0460



유엔미 보치아 동아리 대회

- 일 시 2019.10.12.(토) 10:00~13:00
- 장 소 진해장애인복지관 로비 및 야외경기장
- 내 용 보치아 동아리 대회



여성기능습득 프로그램 (비누심화반, 바리스타반)

- 일 시 10~11월 2개월간 진행
- 대 상 여성장애인
(비누심화반 10명, 바리스타반 7명)
- 문 의 055)540-0450



장애 아동 부모를 위한 '동화그리다'

- 일 시 2019.10.15.(화)~11.19.(화) 10:00
- 장 소 마중갤러리
- 내 용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 (1인/1권 제작)
- 문 의 055)540-0431



학교파견교육

- 일 시 10월~12월(수시) / 신청시 협의 후 실시
- 장 소 신청학교 및 학급
- 내 용 장애인식개선 이론교육, 영상교육, 체험교육
- 문 의 김정선055)540-0433



취업자 자조모임

- 일 시 10월 19일(토) 09:00~18:00
- 대 상 취업자 15명
- 문 의 055)540-0452



호박문화회 가을문학기행

- 일 시 2019.10.04.(금) 09:00~18:00
- 장 소 창녕 우포시조문학관
- 내 용 가을문학기행



해양레저스포츠 크루즈 투어

- 일 시 2019.10.19.(토)09:00~18:00
- 장 소 진해 해양레포츠스쿨
- 대 상 그룹홈이용자 4명
- 문 의 055)540-0450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간담회

- 일 시 2019.10.24.(목) 10:30~13:00
- 장 소 더 연리지 컨벤션
- 대 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 문 의 055)540-0425



생활금융교육

- 일 시 10월24일(목) 14:00~16:00
- 대 상 직업지원팀 훈련생 30명
- 문 의 055)540-0450



이동복지관 진해반해소

- 일 시 2019. 10. 24.(목) 14:00
- 장 소 경화동 남방약국 일대
- 대 상 지역주민
- 문 의 055)540-0400



2019년 부모 교육 우리 아이 고민 - 놀이가 답이다!

- 일 시 2019.10.26.(토) 11:00~12:00
- 장 소 중회의실
- 대 상 유아기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50명
- 강 사 최정희 교수
(문성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겸임교수
아이-부모 행복놀이공동체 연구소)
- 문 의 055)540-0470~1



듣는 연극 청극 으랏차차 천하태평

- 일 시 2019.10.26(토) 11:00~13:00
(변경될 수있음)
- 장 소 강당
- 대 상 지역 장애인 및 가족 100명
- 내 용 소리만으로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그의 시공간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환상을 이루어 내는 폴리야티스트가 극을 더욱더 현장감 있게 그리고 관객들을 환상 속으로 안내 함.
- 문 의 장애인교재대출센터 055)540-0470~1



Cantabile 장애인 실내악단 작은 발표회

- 일 시 2019.10.29.(화) 16:00~16:40
- 장 소 진해장애인복지관 로비
- 내 용 그동안 배웠던 악기 실력을 뽐내 보는 작은 발표회
- 문 의 055-540-0432



따뜻한 겨울나기

- 일 시 11월 ~ 12월
- 장 소 장애인 가정
- 대 상 지역 내 재가장애인
- 문 의 055)540-0460



벗(友)꽃ANDING '그래서, 경화동이 참 좋다.'

- 일 시 2019. 11. 02(토) 11:00~15:00
- 장 소 경화역 일대
- 취 지 지역중심의 장애인식개선 사업
- 대 상 지역주민
- 내 용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의 공연, 체험부스, 프리마켓 진행
- 문 의 055)540-0437



장애인연극단 '햇빛촌' 10주년 기념공연

- 일 시 2019.11.29.(금) 19:00
- 장 소 진해문화센터 공연장
- 내 용 '철수영이' 창작극
- 문 의 055)540-0431



감격데이 (감사와 격려하는 날)

- 일 시 2019.12.04.(수) 10:00~13:00
- 장 소 더 연리지 컨벤션
- 대 상 진해장애인복지관 소속 활동지원사
- 문 의 055)540-0425



송년행사

- 일 시 2019.12.13.(금) 17:30~20:30
- 장 소 복지관 내
- 대 상 복지관 이용자 및 가족,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200명
- 문 의 055)540-0400

바지랑대는 축 늘어지는 빨랫줄을 다시 돋우어 올리는 긴 장대를 말합니다. 진해장애인복지관은 지역의 바지랑대가 되고자 합니다.

주소 51629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번지(풍호동 1번지)
전화 055) 540-0400 팩스 055) 541-0400
홈페이지 www.jcrc.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jcrc001

세상으로 가는 작은길을 함께 디자인하는
 **진해장애인복지관**
Jinhae Community Centre for the Differently Abled

